The Guidonian Hand(귀도의 손)

朴 信 姬

Guidonian Hand(귀도의 손)란 왼손의 마디마다 각 音에 따른 음절들을 지정하여 그 音의 위치 및 기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13세기 말 Hieronymus de Moravia의 논서 등에서 처음으로 발견된다.[1] Guido d'Arezzo[2](ca. 990~1050)의 이름에서 따온 "manus Guidonis"란 명칭은 15세기 말경 B. Ramos de Pareja의 *Musica Practica*(1482)에 비로소 언급되며, 그 이전에는 단지 "manus musicalis"(음악의 손)라 불리운다.

중세 불란서의 이론가이며 교육자인 동시에 Benedictine 대수도원의 수사였던 Guido는 고대 Boethius로부터 중세 Hucbald에 이르는 초기 서양 음악이론의 체계를 확립시킴으로서 중세 음악이론의 발전은 물론 르네쌍스 음악이론, 나아가 현대 음악이론에 이르기까지 그 근거를 이루고 있다. 그의 대표적 논서 가운데, *Aliae Regulae*는 정확한 音度를 위한 staff(보표) 기보법을, *Mirologus*는 letter(문자) 기보법 및 성가와 organum(오르가눔)을, 그리고 *Regulae Rhythmicae*는 채색선과 문자표기선에 의한 기보법을 논하고 있으며, 한편 *Epistola de Ignoto Cantu*에서는 solmization(계명창법)과 Guidonian Hand를 제시하였다.

Guido에 의하여 처음 체계적으로 설명된 hexachord[3](6音음계)는 상행하는 T—T—S—T—T(T : Tonus; S : Semitonus)의 구성을 갖는다. 고대 희랍

---

* 本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지도하여 주신 李如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Guido의 현존하는 작품에는 취급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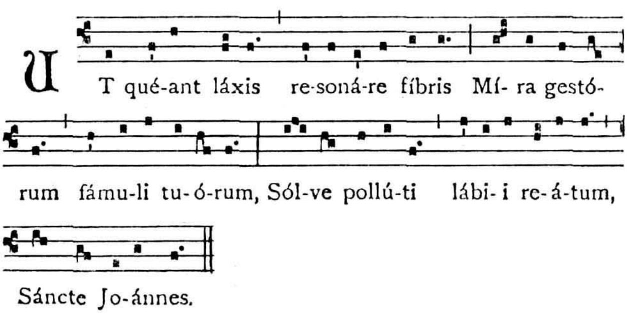
2) Guido d'Aretinus 라고도 함.

3) Guido 자신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같은 의미인 "6音群"이라 일컬었음.

의 tetrachord(4音음계)는 이와 달리, 하행하는 T—T—S의 기본 구성으로서 diatonic(온음계적), chromatic(반음계적), enharmonic(이명동음적)의 3가지 genera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들 중 하행하는 diatonic tetrachord에 tah, tā, toh, teh($T\alpha$, $T\eta$, $T\omega$, $T\varepsilon$)[4]라는 음절들을 사용하였다.

Guido는 ut, re, mi, fa, sol, la의 solmization을 naturale(C), durum(G), molle(F)로 구분되는 각 상행하는 hexachord에 붙여 시창에 응용하였으며, 이 여섯음절들은 세례요한(St. John the Baptist)을 위한 "Ut queant laxis" 가사의 5 stanza中 첫 stanza에서 6半行의 첫 음절들을 인용한 것이다(Ex. 1). 즉, 각 半行의 音들은 C, D, E, F, G, A로 시작되며, 따라서 C는 ut, D는

Ex. 1



re, E는 mi, F는 fa, G는 sol, A는 la의 음절에 각각 해당된다. 이러한 ut, re, mi, fa, sol, la의 음절들은 각기 3 hexachord에 모두 적용되어, 상대적인 音체계로서의 각 음절들은, 주어진 音의 기능을 나타낸다.

Γ(G)에서 $\overset{d}{d}$(d″)까지의 gamut(음계)을 최저音 Γ(gamma) 외에 Grave, Acute, Superacute의 3음역으로 구분했던 Guido의 영향은 13세기 후기 이론가들이 Superacute에 $\overset{e}{e}$(e″)를 더 추가하여 확장시킴으로써 Γ로부터 $\overset{e}{e}$

4) Gustave Reese의 *Music in the Middle Ages*(W.W. Norton, 1968, p. 24)에서는 반대로 "상행의" tetrachord에 이러한 음절이 붙어, tah—tā—toh—teh가 S—T—T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the Greater Perfect System 안에서 tā—toh—teh—tah는 T—T—T의 관계로서 teh와 그 다음의 tah 사이는 온음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온음관계는 disjunct(이접)일때만 가능하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혼동을 초래한다.

5) 한 syllable(계명)을 다른 syllable로 바꿈(Johannes Tinctoris, *Terminorum Musicae Diffinitorium*, 1474~76, 음악연구소 번역 출판, 1986.

의 음역내에 7개의 hexachord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단음절인 Γ, A, B, b (b와 ♮), $\overset{b}{b}$($\overset{b}{b}$와 $\overset{b}{♮}$), 그리고 $\overset{e}{e}$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둘 또는 셋의 hexachord의 복합으로 인한 mutation[5]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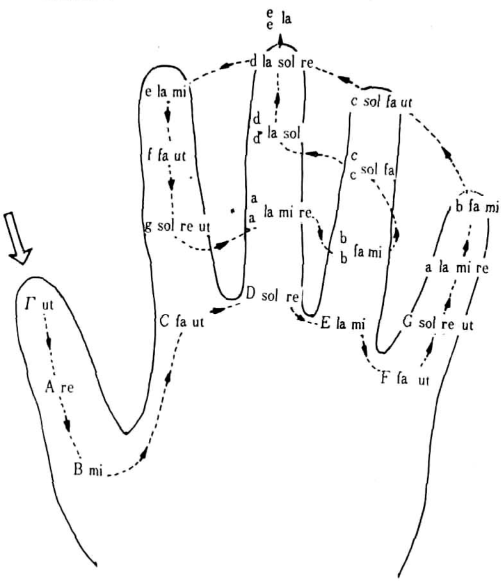
당시 Guidonian Hand는 현대 보표와 대등할만한 것으로, gamut 內 Γ로부터 $\overset{e}{e}$까지의 音들이 왼손(바닥)의 각 마디에 해당한다. 여기서 사용된 20개 音들은 "손안에"로 간주되고, 그외의 반음계적 音들은 "손밖에"라 하여 16세기 후반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손안에서 각 音에 따른 음절들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Ex. 2. 1) :

엄지손가락, 끝의 최저음인 Γ ut→첫째마디[6]의 A re→둘째마디의B mi→
둘째손가락, 셋째마디의 C fa ut→
셋째손가락, 셋째마디의 D sol re→
넷째손가락, 셋째마디의 E la mi→
다섯째손가락, 셋째마디의 F fa ut→둘째마디의 G sol re ut→첫째마디의 a la mi re→끝의 b fa mi→
넷째손가락, 끝의 c sol fa ut→
셋째손가락, 끝의 d la sol re→
둘째손가락, 끝의 e la mi→첫째마디의 f fa ut→둘째마디의 g sol re ut→
셋째손가락, 둘째마디의 $\overset{a}{a}$ la mi re→
넷째손가락, 둘째마디의 $\overset{b}{b}$ fa mi→첫째마디의 $\overset{c}{c}$ sol fa→
셋째손가락, 첫째마디의 $\overset{d}{d}$ la sol→
손위, 최고음인 $\overset{e}{e}$ 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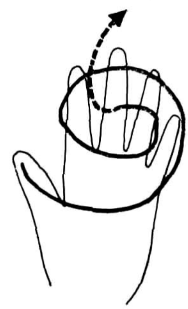
이상의 진행 순서를 "연결된 선"으로 나타내면(Ex. 2. 2), 손가락의 가장자리로부터 중심되는 셋째 손가락 안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원"의 모양을 따른다. 이는 white mensural notation 가운데 Tempus Perfectum cum Prolatione Imperfecta인 ○와 Tempus Perfectum cum Prolatione Perfecta인 ⊙의 모양과도 흡사한 것으로서 "완전함"(perfectum)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믿는다. 즉 이러한 "원"의 모양은 중세와 르네쌍스 시대를 통하여 가장 "완전함"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또한 마지막 최고音인 $\overset{e}{e}$ la는 셋째 손가락 끝을 벗어나 "위", 곧 "하늘"(神)을 향하고 있다.

6) 각 손가락 끝으로부터 안쪽을 향하여 첫째, 둘째, (혹은) 셋째 마디순으로 정하였음.

Ex. 2. 1



Ex. 2. 2



한편, (F fa ut과 f fa ut을 제외한) 각 음절들은 〈3〉+〈3〉+〈3〉의 공통성을 갖고 있다(Ex. 3. 1) :

즉, ⋯〈Γ ut → A re → B mi 〉는
〈3〉 ⋯〈G sol re ut → a la mi re → b fa mi〉와
⋯〈g sol re ut → $\overset{a}{a}$ la mi re → $\overset{b}{b}$ fa mi〉; 그리고

〈3〉

⋯〈C fa ut → D sol re → E la mi〉는
〈3〉 ⋯〈 c sol fa ut → d la sol re → e la mi〉와
⋯〈$\overset{c}{c}$ sol fa → $\overset{d}{d}$ la sol → $\overset{e}{e}$ la 〉에 짝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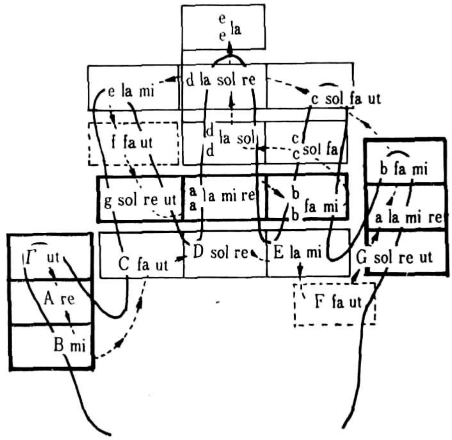
〈3〉

3박자로 현대 기보의 9/8에 해당되는 Tempus Perfectum cum Prolatione Perfecta 역시 [3, 3], 즉 〈3〉+〈3〉+〈3〉[7]의 구성으로서, 이와 같은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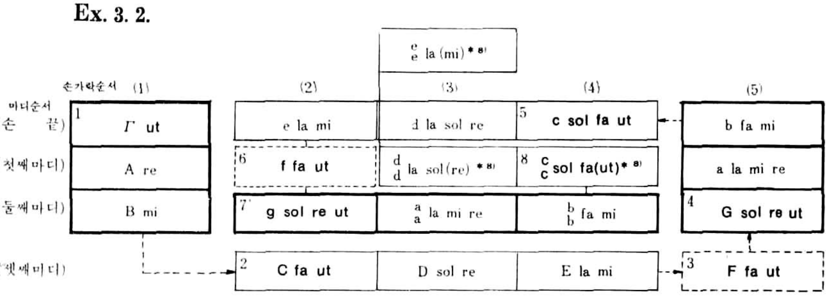
7) ⊟ = ◇+◇+◇ = (♢♢♢)+(♢♢♢)+(♢♢♢)

적 암시는 당시 절대적으로 지배해 온 종교적 symbolism(상징주의)인 “三位一體”를 재현시키고 있는 것이라 믿는다.

Ex. 3. 1



Ex.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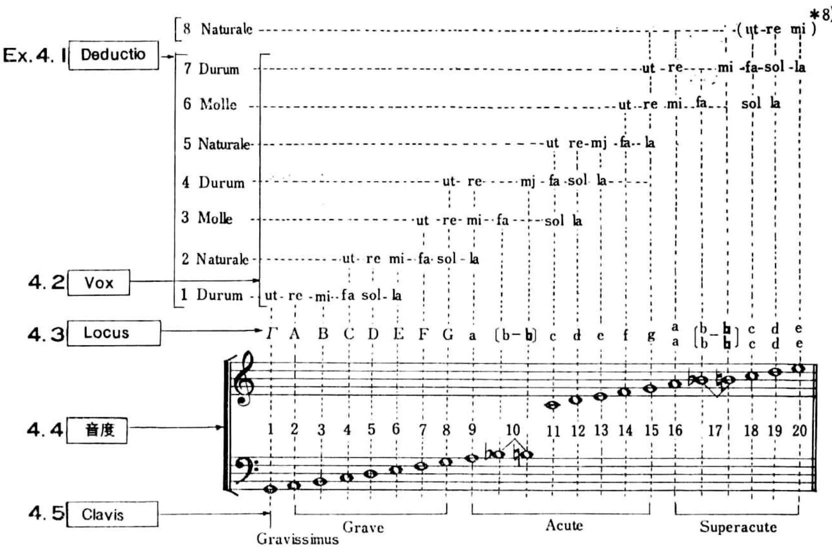


손의 배치를 도표화하면(Ex. 3. 2), 각 hexachord의 시작音 가운데 F fa ut과 f fa ut을 제외한 Γ ut, C fa ut, F fa ut, G sol re ut, c sol fa ut, g sol re ut, 그리고 $\substack{c\\c}$ sol fa(ut)[8]은 모두 〈3〉을 이루는 첫音들로서 deductio[9]의 각 출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되어 있다(Ex. 3. 21∼3. 28과 Ex. 4. 11∼4. 18 비교). 따라서 vox[10]는 필연적으로 복합적이 되며(Ex. 4. 2),

8) 당시 7개 deductio만 사용되었으나, 음역의 연장을 계속할 경우 이곳에서도 다시 hexachord naturale이 가능함.

9) 특정음역 안의 6音음계(李如辰, *Benedicamus Domino: Coherent Relationships Between Plainsong and Organum Duplum*, In Theory only, Journal of the Michigan Music Theory Society, vol. 6, No. 5, July 1982, p.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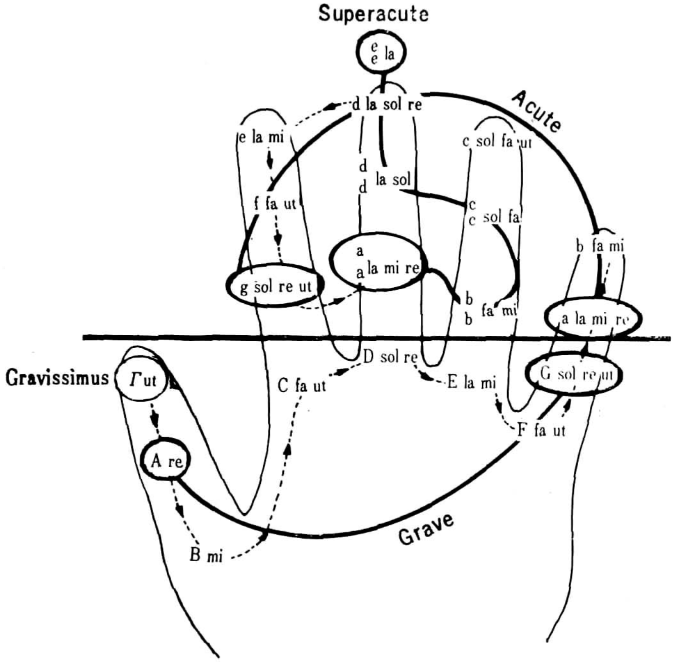
10) 6音음계 안의 音기능(*Ibid.*, p. 18).



locus[11]와 결합하여 각각의 音名을 이루게 된다(Ex. 4. 3의 현대보표에 따른 각 音度는 Ex. 4. 4). 이러한 복합 音名들에서 Gravissimus를 제외한 Grave, Acute, Superacute의 clavis[12]는 손안에서도 시각적으로 명확히 3구분을 갖는다(Ex. 5) : 즉, 엄지 손가락 끝의 Γ ut인 Gravissimus로 시작하여 Grave는 "손마디의 바깥쪽을 연결하는 원"의 아랫부분으로서 A re부터 G sol re ut까지이고, Acute는 "손마디의 바깥쪽을 연결하는 원"의 윗부분으로서 a a mi re부터 g sol re ut까지이며 ; 그리고 Superacute는 손위로 벗어나는 것으로서 aa la mi re부터 손위에서 맺음하는 ee la까지이다. 따라서 최저음역으로 엄지 손가락 끝에 유일하게 희랍문자로 표기되는 Gravissimus로 시작하여, Grave는 저음역이므로 "손마디의 바깥쪽을 연결하는 원"의 아랫부분에 대문자로, Acute는 고음역이므로 "손마디의 바깥쪽을 연결하는 원"의 윗부분에 소문자로, 그리고 Superacute는 최고음역이므로 손위를 향하여 이중소문자로 표기된다.

11) 음표의 장소(*Ibid.*, p. 18).
12) 音장소의 문자기보(*Ibid.*, p. 18).

Ex. 5



현대와 같은 보표가 없던 당시, 단지 "왼손 하나"로서 중세와 르네쌍스 음악 이론의 핵심적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나타낸 Guidonian Hand는 그 배치와 조직면에서 경이할 만큼 완전하다 하겠다. 즉, locus와 vox 및 deductio와 clavis에 따른 총 73개의 서로 다른 音기능들을 동시에 나타낼 뿐 아니라, "중세"라는 한시대 자체를 성립시키다 싶이한 "절대적 神"에 대한 symbolism 역시 이러한 音의 진행 순서 및 배치들을 통하여 놀랄만큼 다각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실제 음악실습에서 Guidonian Hand의 응용은 이러한 「기능」과 「상징」의 조화를 바탕으로 그러나 그 어떤 면보다도 괄목할만한 실용적 가치를 갖는다. "정식으로 익히기에 數주일이 필요한 曲을 불과 몇일만에 익히도록 지도할 수 있었다"는 (수사 Michael에게 보낸) Guido의 편지 내용으로도 이의 「실용성」은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Guidonian Hand"가 마치 全 중세와 심지어 르네쌍스 시대까지를 대표하듯 오늘날까지 여겨져 옴은, 이상의 사실들을 고려할 때,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Abstract*〉

THE GUIDONIAN HAND

Shinhee Park

"The Guidonian Hand," invented by Guido d'Arezzo for teaching solmization, superbly organaizes the core of music theories available throughout the Medieval and Renaissance periods.

This article seeks to explain the logical and coherent arrangement of locus, vox, deduction, and clavis which are all 73 different pitch functions in "The Hand," with references to the symbolism of the Trinity, that is, the concept of perfection in that period.